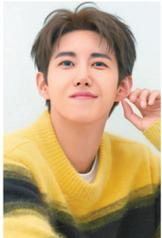


One pick

핫 이슈

“황광희 밝은 모습 다시 보고싶다” ‘최고의 요리비결’ 진행자 재탈환

방송인 황광희가 5년 만에 EBS 요리프로그램 ‘최고의 요리비결’로 돌아온다.



황광희

그는 28일부터 ‘최고의 요리비결’의 진행자로 나서 요리연구가들과 다양한 요리 비결을 소개한다. 입대하기 전인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 무대를

그의 복귀는 시청자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제작진은 “시청자 게시판에는 최근까지 황광희를 다시 보고싶다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밝고 친근한 그의 성격이 프로그램과도 딱 맞다”고 재탈환 이유를 밝혔다. 방영 당시 진지하게 요리를 배우며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내 시청자의 호평을 이끌었다.

2000년부터 22년간 방영해온 프로그램 역사상 진행자석을 ‘재탈환’하기는 최초다. 지금까지 배우 정애리, 명세빈, 방송인 박수홍, 슈퍼주니어 이특 등 수많은 스타가 거쳐 간 진행자 자리에 두 번이나 오르게 됐다.

그는 프로그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3일 오전 9시 공개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소감을 전한다. 그동안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온 ‘최고의 요리비결’을 위해 준비한 노력, 다른 요리프로그램과 차별화 전략 등도 직접 밝힌다. 유지혜 기자 yjh30304@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10년만에 돌아온 ‘더 배트맨’...무엇이 달라졌나?

미숙한 배트맨...영웅보단 탐정?

리브스 감독 “현실적인 면 부각” ‘최연소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 “이상적 통제로 가는 여정 담아” 차기작 봉준호 감독과 ‘미키7’



로버트 패틴슨

배트맨이 10년 만에 새로운 수트를 꺼내 입고 다시 날아오른다. 3월 1일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영화 ‘더 배트맨’을 무대 삼는다.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글로벌 스타덤에 오른 로버트 패틴슨이 새 배트맨을 맡았다.

배트맨은 마블코믹스와 함께 슈퍼 히어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미국 만화산업을 가른 DC코믹스의 대표적 캐릭터다. 영화는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징’을 끝으로 막을 내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시리즈 이후 10년 만에 관객을 만난다.

하지만 이전 시리즈와 연결성 없이 독자적 스토리를 구축한 영화는 슈퍼 히어로보다는 미숙한 초보 자경단원으로 살아가는 브루스 웨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그야말로 이전 작품들과는 결이 다른 배트맨 무비의 탄생이라 할 만하다.

● “통제하지 못하는 미숙한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은 마이클 키튼, 크리스찬 베일, 벤 애플렉 등에 이어 9대 배트맨으로 낙점됐다. 슈퍼 히어로와 재벌 2세 사업가라는 두 가지 삶 사이에 위태롭게 선 초보 자경단원이다. 최근 한국



다음 달 1일 개봉을 앞둔 영화 ‘더 배트맨’은 그동안 선보인 ‘완벽한 슈퍼 히어로’와는 사뭇 다른 배트맨의 모습을 담아 호기심을 자극한다. 사진제공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기자단과 온라인 화상으로 만난 그는 “배트맨은 두 가지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줄 아는 슈퍼 히어로이다”면서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배트맨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상적인 자기 통제에 다가가기 위해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테넷’으로 인연을 맺은 크리스

토퍼 놀란 감독의 “실용적인 조언”도 귀담아들었다고 돌아왔다. 놀란 감독은 배트맨 “망토의 재질과 사용”에 대해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며 그의 조언이 슈퍼 히어로 특유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로버트 패틴슨은 ‘더 배트맨’ 이후 봉준호 감독과 함께 할 예정이다. 세계가 주목

하고 있는 봉 감독의 신작 ‘미키7’(Mickey 7)에 주연으로 나서는 그는 “정말 대단한 영화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봉준호 감독은 놀랍다. 그와 함께할 작업을 정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 “현실적인 탐정 이야기”

‘더 배트맨’의 새로운 연출자는 ‘혹성탈출’ 시리즈로 잘 알려진 매트 리브스 감독이다. 그는 로버트 패틴슨과 함께 조이 크라비츠, 폴 다노, 폴린 파렐, 앤디 서키스 등 스타급 배우들을 지휘했다. 그는 “탄생한 지 80년이 넘는 신화적이면서도 익숙한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관객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영화가 되길 바랐다. 그래서 “판타지 액션이 아닌 탐정영화의 플롯”을 택했다.

“배트맨은 도시를 공포에 빠뜨린 살인마 리들러(폴 다노)를 잡기 위해 증거를 찾고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계속 인간적 질문을 던지며 탐구해간다.”

그런 만큼 현실과 맞닿아 있는 슈퍼 히어로물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메인 빌런을 외계종족이나 초능력이자 아닌 살인마로 설정한 이유다. 배경인 고담시를 정경유착과 테러 등 문제를 얹는 부패한 도시로 그려낸 것도 “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현실적인 면을 부각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었다. 물론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 가상의 설정과 현실적인 느낌, 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아이폰으로 찍은 무협사극 ‘일장춘몽’...거장 박찬욱 감독의 신박한 도전



손바닥만한 아이폰으로 촬영한 단편영화 ‘일장춘몽’의 주연인 김우형 촬영감독, 주연배우 유해진·김옥빈, 박찬욱 감독, 배우 박정민(왼쪽부터). 사진제공 | 애플

판소리 마당극 형식 빌린 단편영화 이날직 장영규 ‘스우파’ 모니카 참여 박 감독 “마음껏 노는 잔치판 같다”

‘명장’ 박찬욱 감독이 아이폰을 통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신작을 내놨다. 단편영화 ‘일장춘몽’(제작 모호필름)이다. 무협물을 표방한 박 감독의 첫 사극이다.

박찬욱 감독은 동생이자 설치미술가인 박찬경 감독과 함께 ‘일장춘몽’을 스마트폰인 아이폰13으로 촬영, 제작했다. 애플이 세계 각국의 감독들과 함께 단편영화를 선보이는 ‘샷 온 아이폰’(Shot on iPhone)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애플은 이를 자사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화 배경음악도 애플뮤직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유해진, 김옥빈, 박정민이 출연하는 ‘일장춘몽’은 마을의 장의사가 은인(김옥빈)의 시신을 묻을 관을 만들기 위해 무덤을 파헤치면서 무덤의 주인인 검객(박정민)이 깨어나 벌어지는 소란을 그렸다.

일찌감치 스마트폰 카메라의 영화적 활용에 주목해온 박찬욱 감독은 2011년 박찬경 감독과 함께 ‘파킹찬스’라는 연출팀을 결성, 아이폰으로 촬영한 단편영화 ‘파란만장’을 선보였다. 이 영화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단편 경쟁부문 황금곰상(대상)

을 수상했다.

박 감독은 이번에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무협사극 장르에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판소리 마당극의 형식을 끌어들이었다. 단편영화이기에 가능했던 시도다. 그는 “장편영화로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다. 장편 상업영화에서 시도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단편영화의 장점”이라며 “스마트폰 영화이니만큼 더 자유로웠다. 마음껏 노는 잔치판 같은 영화를 구상한 이유다”고 만족스러워했다.

판소리에 코믹함과 세련됨을 덧붙이기 위해 ‘범 내려온다’로 독특한 국악의 매력을 보여준 밴드 이날치의 리더 장영규를 음악

감독으로 영입했다. 애플 댄스 서바이벌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로 댄스 열풍을 몰고 온 모니카도 안무감독으로 참여했다.

모니카의 팬이라는 박찬욱 감독은 “몇 초 단위로 채널을 오가며 TV를 보는데 ‘스우파’는 고정으로 봤다”면서 “나만 ‘스우파’를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몇 주가 지나니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 사람들이 내가 ‘스우파’를 모르는 것처럼 말하기에 속으로 ‘하, 참! 이제야 알았나?’라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스마트폰 영화 촬영에 나선 충무로의 대표적 촬영감독인 김우형 감독은 “도전이라기보다는 경쾌하고 재미있는 작업이었다”면서 “촬영 준비 시간도 짧고 적당한 장소에서 바로바로 촬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일요일 경기결과 <20일>

■봅슬레이 ■4인승 남자 예선 3차=① 독일(프리트드리히), ② 독일(로크너), ③ 캐나다(크립스), ④ 한국(원윤승, 59초38), ⑤ 한국(석영진, 59초91)

■4인승 남자 예선 4차=(금) 독일(프리트드리히, 3분54초30), (은) 독일(로크너, 3분54초67), (동) 캐나다(크립스, 3분55초9), ④ 한국(원윤승, 3분58초2)

■아이스하키 ■남자 결승=핀란드 2-1 ROC

■알파인 스키 ■혼성 팀 평행 빅 파이널=(금) 호주(브렌슈타이너, 48초27), (은) 독일(슈미트, 48초46), (동) 노르웨이(솔하임, 48초34)

■컬링 ■여자 결승=영국 10-3 일본

■크로스컨트리 스키 ■30km 단체 출발 프리 여자 결승=(금) 요헤우(노르웨이, 1시간24분54초), (은) 다닌스(미국, 1시간26분37초3), (동) 니스카넨(핀란드, 1시간27분27초3)

토요일 경기결과 <19일>

■스피드스케이팅 ■메스스타트 남자 결승=(금) 스웬스(벨기에, 63점), (은) 정재원(한국, 40점), (동) 이승훈(한국, 20점)

■메스스타트 여자 결승=(금) 슈오텐(네덜란드, 60점), (은) 블룬디(캐나다, 40점), (동) 몰로브리지다(이탈리아, 20점), ⑤ 김보름(한국, 6점)

■컬링 ■남자 결승=스웨덴 5-4 영국

■크로스컨트리 스키 ■50km 단체 출발 프리 남자 결승=(금) 볼슈노프(ROC, 1시간11분32초7), (은) 야키무시킨(ROC, 1시간11분38초2), (동) 크루거(노르웨이, 1시간11분39초7)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남자 결승 종합=(금) 포르테우스(뉴질랜드, 93.00점), (은) 와이즈(미국, 90.75점), (동) 페레이라(미국, 86.75점)

프로축구 <20일>

●팀순위 ●득점 ●실점 ●전수 ●팀 득점

순위	팀	승	점	승	패	무	득점	실점	전수	팀 득점
1	포항	3	1	0	0	3	0	① 허용준	포항	2
2	강원	3	1	0	0	2	0	② 김대현	강원	1
2	서울	3	1	0	0	2	0	② 디노	강원	1
4	인천	3	1	0	0	1	0	② 임상현	포항	1
4	전북	3	1	0	0	1	0	② 송민규	전북	1
6	김천	1	0	0	1	0	0			
6	울산	1	0	0	1	0	0			
8	수원	0	0	1	0	0	1			
8	수원FC	0	0	1	0	0	1			
10	대구	0	0	1	0	0	2	② 이용재	포항	1
10	성남	0	0	1	0	0	2	② 문선민	전북	1
12	제주	0	0	1	0	0	3	④ 윤종규	서울	1

●하나원큐 K리그1 2022 (1라운드) 경기결과

DGB대구FC	대구	0-1	2	서울	8,082명	전주W	전북	1	0-0	0	수원	FC	7,715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3	5	수원	5	6	4	5	수원	1	8				
4	1	오르샤이드	1	2	1	1	오르샤이드	1	0				
6	11	파울	7	4	8	13	파울	6	5				
0	3	코너리	1	2	1	1	코너리	2	4				

▲골=조영철(23분), 도윤=윤종규, 나상희(83분, 85분), 이상서(89), ▲경기=라마스, 홍정호, 고재현, 김희승(이상 대구), 이태석, 나상희(이상 서울)

▲골=송민규(34분), 도윤=문선민, 전복 ▲경기=쿠니모토, 홍정호, 김보경, 백승호(이상 전북), 박은호, 정재환(이상 수원FC)

인천전용 인천 1 0-0 0 수원 5,382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1	0	수원	2	3
8	9	오르샤이드	0	0
8	7	파울	4	5
0	5	코너리	2	3

▲골=무고사(후46분), 도윤=이용재, 인천 ▲경기=이동수(인천), 박대현, 정승원(이상 수원) ▲피칭=김건희(수원)

강릉종합 강원 2 0-0 0 성남 1,933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0	4	수원	3	12
0	1	오르샤이드	0	1
5	7	파울	8	5
1	0	코너리	1	5

▲골=디노(후35분), 김대현(후42분), 이상 강민 ▲경기=정승원(강원), 이시영, 권만규, 이용성(이상 성남)

울산문수 울산 0 0-0 0 김천 4,673명

▲골=임상현(전18분), 허용준(후28분), 허용준(후45분), 도윤=정재희, 이상 포항 ▲경기=정운, 김오규(이상 제주), 임상현, 신진호, 이승모, 박승우(이상 포항)

해외축구 <20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아스널	2-1	브렌트포드	왓포드	1-0	에스턴블라
버리	3-0	브라이튼	첼시	1-0	크리스탈팰리스
리버풀	3-1	노리치시티	토트넘	3-2	맨체스터시티
사우스햄튼	2-0	에버턴	웨스트햄	1-1	뉴캐슬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프라이부르크	2-1	아우구스부르크	빌레펠트	1-0	우니온베를린
킵퍼	1-0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1-1	보훔
호펜하임	2-1	볼프스부르크			

프로골프 <20일>

●PGA TOP10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

① 니먼(칠레)	-19	② 캐머런(미국)	-16	③ 호블랜(노르웨이)	-13
④ 토마스(미국)	-12	⑤ 모리자와(미국)	-11	⑥ 셰틀러(미국)	-10
⑦ 맥닐라(미국)	-10	⑧ 호바(미국)	-10	⑨ 레시먼(호주)	-10
⑩ 이경훈(한국)	-7	⑪ 김시우(한국)	-1	⑫ 임성재(한국)	-1

경기예고

프로배구 <21일>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인삼공사	(대전충무)	도로공사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1일>

●2021-2022 FK리그(단양국민체육센터) ●슈퍼리그=노원FS-고양블스(오전11시), 전주매교-에스구미(오후2시), 판타지아부천-은평나인티(오후5시)

●2022 한국프로탁구리그(수원 광교씨름체육관 탁구 전용경기장) ●남자부 코리아리그=KGC-미래에셋(오후6시), 보람할렐루아-상무(오후9시)

●제 17회 제주평화회 전국태권도대회(제주, 오전9시30분) ●제 1회 2.28 민주운동기념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대구, 오전9시30분)